

평창올림픽 성공을 기원합니다 지구촌 평화를 위한 2018동계올림픽

세계인의 축제, 제23회 동계올림픽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곧 열린다.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북한의 극적 참여로 흥행이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2002년 월드컵 이후 26년 만에 열리는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겨울올림픽의 성공을 국민들은 모두 바라고 있을 것이다.

올림픽과 구세주

지금 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기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6000년 동안 집권한 마귀로부터 빼앗은 우주 통치권을 이기신 하나님이 지금 행사하고 있다. 다만 마귀가 인간들 속에서 아직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맘대로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고 마귀의 눈을 가리거나 피하면서 통치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이기신 하나님은 분신(分身)으로 움직이는 전자전능의 능력자이시므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는 것이다.

88서울올림픽에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참가했다고 한다. 당시 남북한 상황은 지금보다 더 위험했다. 북한이 아직 유엔에 미가입한 불확실한 상황인데다가 남한은 여소야대의 정치가 불안하였다. 그럼에도 지구상 가장 위험한 곳인 한반도에 최대참가



평창올림픽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고, 올림픽 성공이 국민의 뜻이다

국기목을 세웠다. 왜 그랬을까?

한편 체육 약소국인 한국은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4등을 했다. 금메달 12, 은메달 10, 동메달 11개로 예상 밖의 등수로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했다. 어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88서울올림픽: 구세주 출현 소식 알리기 위한 대회

이러한 예상 밖의 일에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었다. 숫자에는 각각의 뜻이 있다. 4수는 땅의 완전수로써 한국이 4등을 했다는 것은 땅의 뜻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다. 또한 금메달 12개에 담긴 뜻이 있다. 12수라는 것은 3×4=12이므로 여기서 3

수는 하늘의 완전수요 4수는 땅의 완전수이다. 즉 12라는 숫자는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의미의 숫자이다.

또한 금메달을 딴 일정에 깊은 의미가 있다. 88년 9.17 시작하여 5일째 되는 날, 즉 9.21 금메달이 나왔고, 두 번째 금메달은 9.25, 즉 5자가 붉은 날 나왔고, 9.21에서 5일째 되는 날, 즉 9.26 셋째 금메달이 나왔고, 그 다음 5일 후인 9.30에 금메달이 네 개 나왔다. 이날은 금메달이 4번째 나오는 날이므로 4개가 나왔다. 그 다음 10.1 금메달이 3개 나왔는데, 이것은 10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1은 이겼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

었다는 의미의 날이다. 그리고 10월 2일 금메달이 2개가 나온 것은 3수가 들어 있으면 6이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두 분을 상징한다. 6수가 과거에는 마귀의 수였지만 이긴자가 나온 다음에 마귀의 숫자를 빼앗아 하나님의 숫자가 되었으므로 6번째 되는 날 금메달이 두 개가 나오면서 전부 금메달이 12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은 서울올림픽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출현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마치 정해진 바둑판에 돌을 두신 것처럼 예정된 역사를 하였던 것이다.

평창 평화올림픽

88올림픽이 남북분단국인 한반도에서 성공적으로 폐막한 후 세계인들은 평화공존의 이상이 실현될 가능성을 보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지구상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으며 나중에 공산주의의 멸망으로 이념 대결이 완전히 종식되는 놀라운 평화의 대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평창올림픽은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보면 대북한의 ICBM도발로 이어진 국제사회의 대결 구도를 평화로 바꾸기 위해 미리 앞을 내다보시는 이기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전쟁 방지 안전장치일 것이다. 남북전쟁을 막고 통일을 이루실 이기신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알아야 할 것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26)

“누구를 봐도 내 하나님의 얼굴로 보여야”

진정으로 형제 사정을 내 사정으로 여기고 형제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겨야 한다. 또한 형제를 하나님으로 여겨야 나라를 것을 완전히 이겼다가 되고 나라를 것을 죽였다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율법이다. 자유율법은 나를 죽이는 법이고 나를 죽이는 비결은 나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하는 고로 이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요, 저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요, 누구를 봐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활로 완전히 탈바꿈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고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올림픽 성화 채화, 성화 봉송의 참의미

올림픽 대회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자 이벤트가 성화채화 봉송이다. 성화는 고대 올림픽의 헤라 신전 여사제가 오목 스틸 거울에 태양광선을 비추어 채화한다. 최고의 신 제우스신상 바로 뒤에 헤라신전과 최초의 올림픽 성화를 채화한 헤라제단(Hera's Altar)이 있다. 하늘의 빛을 인간이 사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불로 만드는 장소가 바로 헤라제단이다. '헤라'는 불의 여신으로, 자궁을 가지고 생명을 잉태해서 자손을 번식시키는 여성을 상징한다. 성화 채화는 신성한 올림픽 정신의 상징이다.

성화 봉송은 인류애를 상징하는 '평화·존중·이해'라는 올림픽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감동적인 이벤트다.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은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담아 남·북한 인구 7500만 명을 뜻하는 7500명의 주자들이 개막 100일 전인 11월 1일부터 개최연도를 상징하는 2018km를 달린다. 릴레이에는 경제, 환경,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문화, 평화의 테마를 담고 거북선, 황포돛배, 해상 케이블카, 요트 등 이색 봉송수단이 등장한다. 성화 봉송 주자들은 다문화가정, 장애인, 소외계층, 사회 공헌자 등을 선발해 모두를 아우르는 화합의 축제로 만든다.

고대 올림픽은 각 도시국가에서 선발된 선수들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서 대회 기간 앞뒤 3개월 동안은 전쟁을 중지했다.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하나의 평화 행사였다. 또한 올림픽 출전선수들은 전부 나체였다. 신(神)들도 나체로 형상화 되었다. 나체

는 신과 인간의 평등을 전제로 하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강인한 체력을 가진 자만이 보여줄 수 있다. 올림픽은 선의의 육체적 경쟁을 통해 '평화·존중·이해'라는 올림픽의 가치, 평화통일, 공존동생의 인류애를 더 빨리, 더 높게, 더 강하게 실현해 낼 수 있는 온전한 지혜의 빛성화를 회복하기 위한 자기한계의 도전, 마음의 투쟁, 심신(心神)들의 전쟁에 대한 상징이다.

역사는 햇빛을 받아 더욱 명료해지고, 신화와 전설은 달빛을 받아 구전된다고 한다. 수많은 역사, 신화와 전설이 있지만 전자전능함의 밝기와 온기를 상실한 해와 달 정도의 지식과 지혜에 머물고 있는 인간의 한계로 인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

인류역사 6천 년은 한마디로 성화(聖火)의 본질을 밝혀 성령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긴 투쟁의 역사였다. 성경은 불사영생의 성화를 완성하기 위한 성화 봉송의 주역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단이며 이후 단지와 민족인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주자인 이기신 구세주를 통해 불사영생, 전자전능한 성화의 불씨를 완전히 회복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를 통해 6천 년 전 에덴동산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성화, 성령의 불씨를 죽인 주범, 마귀 영선악과가 인간의 '나'라는 주체 의식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이 평창올림픽 성화봉송 행사의 슬로건이다. 인간을 불사영생의 구세주로 부활하게 하는 성령의 불꽃, 자유율법이 만인의 가슴에 점화되기를 기원한다.*

안병천 승사 / 본부제단 기획부장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비하인드 스토리

지난해 여름에 개봉한 '택시운전사'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로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그리고 이어서 신정(新正) 닷새를 앞두고 영화 '1987'이 개봉되었는데, 이 또한 1987년 6월 10일 민주화 항쟁을 배경으로 했다. 87년 6월 항쟁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는 6·29선언을 이끌어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바라보며 간디처럼 비폭력 평화시위를 갈구하다

이제 박태선 기자와 관련된 87년 6월 항쟁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386세대인 박 기자는 1980년대 초에

화염병과 돌맹이를 던지는 대학생들의 시위를 TV에서 볼 적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인도의 간디처럼 비폭력 평화시위를 이끄는 지도자는 없을까?' 하며 안타까워하고 비판에 잠겨곤 하였다. 그러다가 박 기자는 인도의 간디처럼 비폭력 평화시위를 군중들에게 호소하며 행진하는 꿈을 자주 꿔다.

박 기자는 1981년 2월 통영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가정형편상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이후 5년간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고향 통영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벗 삼아 시(詩)를 지으며 가곡을 부르면서 소일하며, 도서관이나 헌책방에서 철학서적을 구해다가 읽는 것이 취미였다.

그러다가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게 솟구쳐 올라와 5년 동안 강그리 잊어버린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교과서를 다시 손에 쥐고 대입에 도전하였다. 62년생이지만 86학번 늦깎이 학생으로 진주에 있는 국립경상대학교 철학과에 차석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럼 첫 번째로 1987년 6월 15일에서 6월 17일까지 진주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두 번째로 17일 다음날 18일에는 국립경상대학교 민주광장에 학생들이 거의 모이지 않고 겨우 수십 명의 학생들만 대학교 정문에서 전경과 대치하다가 자진해산하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시위 열기가 식



진주 시청 앞에서 시위하는 경상대 학생들(87.6.15)

어버린 미스터리한 배경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그 당시 진주에서 일어난 6월 항쟁을 잘 소개한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면에 계속 ▶

머리 말에 두면 참 좋은 책



라준경 지음/ 값 10,800원

라준경의 '인생이야기' 휴식 같은 시

현대인은 바쁘다. 쉴 새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다 지쳐 쓰러져 잠이 든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사이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이제 종말 때가 장소가 필요하다. 그대의 휴식과 영혼이 잠시 쉴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저자는 어둠하는 시들 중에서 한 뼛을 뽑아내 자신의 감성을 녹여 일상에 접목하여 글을 썼다. 저자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독자들의 지친 영혼에 한줌의 시원한 바람이 될 것이다. 잠들 무렵 그대 옆에 이 한 권의 책을 놓아두라. 그러면 그대는 저자가 말한 쉼 곳으로 인도되리라.

도서출판 해인



지은이 _ 라준경

경북 대구 출생 (1970)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학 수료 (현) 대구 승리제단 승사 국제 신인류 문화학회 임원